그

He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26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He" (Weird Tales 1926년 9월)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68547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5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삽화: "노인은 곰팡내 나는 공기 사이로 나를 향해 손톱을 휘두르고 침을 뱉었다. 그는 움켜쥔 노란 커튼과 함께 몸을 흔들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짖어댔다."]

잠 못 이루던 어느 밤, 나는 내 영혼과 내 환상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걷다가 그를 보았다. 뉴욕에 온 것은 실수였다. 잊힌 안뜰과 광장, 부두에서 시작해 또다시 잊힌 안뜰과 광장, 부두로 끝없이 뒤엉켜 이어지는 고대 거리의 미로 속에서, 나는 가슴을 울리는 경이로움과 영감을 기대했다. 기울어가는 달빛 아래 바빌론의 유적처럼 검게 솟아오른 거대한 현대식 탑과 첨탑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공포와 압박감뿐이었다. 그 기운은 나를 지배하고, 마비시키며, 끝내 소멸시켜 버릴 듯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환멸은 서서히 찾아왔다. 처음 이 도시에 발을 들였을 때, 나는 다리 위에서 노을에 잠긴 도시의 모습을 보았다. 수면 위로 솟아오른 도시의 모습은 장엄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높이 솟은 봉우리와 피라미드들은 보랏빛 안개 늪에서 꽃처럼 섬세하게 피어나, 타오르는 황금빛 구름 및 저녁의 첫 별들과 어우러져 있었다. 이윽고 일렁이는 조수 위로 등불이 흔들리며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깊은 울림의 경적 소리가 기묘한 화음을 내뿜을 때, 창문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도시는 그 자체로 꿈결 같은 별의 하늘이 되었고, 요정의 음악 같은 향기를 머금은 채 카르카손이나 사마르칸트, 엘도라도처럼 찬란하고도 전설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오랫동안 동경해 마지않던 그 고풍스러운 길들을 직접 거닐게 되었다. 좁고 굽이진 골목과 통로 사이로 붉은 조지아 양식의 벽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기둥이 세워진 출입구 위로는 작은 창문들이 달린 다락방들이 눈을 깜빡였다. 그 문 앞에는 한 때 금칠을 한 가마와 화려한 마차들이 드나들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갈망해 온 풍경을 마주한 그 설레는 순간, 나는 마침내 언젠가 시인이 되기에 충분한 보물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성공도 행복도 찾아오지 않았다. 달빛 아래서는 고대의 마법과 아름다움이 감도는 듯하더니, 눈부시게 밝은 대낮이 되자 드러난 것은 오직 비참한 빈민가와 이질적인 풍경뿐이었다. 달빛이 암시했던 그 신비로운 정취는 온데간데없고,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뻗어 나간 돌덩이들이 마치 병든 코끼리의 부종처럼 흉측하게 엉겨 붙어 있었다.

관 모양처럼 좁고 길게 늘어진 거리에는 사람들이 들끓었다. 그들은 모두 몸집이 왜소하고 피부가 검은 이방인들이었다. 굳게 다문 입술과 가늘게 뜬 눈을 한 그들은 영악한 기색이 역력한 낯선 이들이었다. 그들에게는 꿈도, 주변 풍경과 교감할 마음도 없었다. 푸른 녹색 길과 뉴잉글랜드 마을의 하얀 교회 첨탑을 사랑하는, 푸른 눈을 가진 옛 혈통의 사내에게 그들은 결코 동질감을 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내가 기대했던 시(詩) 대신 찾아온 것은 오직 전율 섞인 공허와 형언할 수 없는 고독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두려운 진실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것은 비밀 중의 비밀이자, 결코 속삭여서는 안 될 비밀이었다. 돌과 소음으로 가득한 이 도시

는 런던이 옛 런던의 연장선이고 파리가 옛 파리의 연장선인 것처럼, 옛 뉴욕이 영속되어 살아 숨 쉬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도시는 사실 완전히 죽어 있었다. 거대하게 뻗어 나간 도시의 육신은 불완전하게 방부 처리된 채, 생전의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기이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들에게 잠식당해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뒤로 나는 편히 잠들 수 없었다. 다만 낮에는 거리로 나가지 않고 오직 밤에만 밖을 나서는 습관을 들이면서, 체념 섞인 평온함이 조금씩 되찾아오기는 했다. 어둠이 내리면 과거의 흔적들이 망령처럼 희미하게 떠오르고, 오래된 하얀 문들이 한때 그곳을 지나갔던 강건한 형체들을 기억해 내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달래며 시를 몇 편 쓰기도 했지만, 패배자처럼 비굴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일은 여전히 삼가고 있다.

잠 못 이루던 어느 밤, 산책을 나섰다가 그를 만났다. 장소는 그리니치 빌리지의 기괴하고도 숨겨진 안뜰이었다. 나는 그곳이 시인과 예술가들의 안식처라는 말만 듣고 무지하게도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고풍스러운 골목과 가옥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광장과 안뜰의 풍경은 분명 나를 즐겁게 했다. 비록 그곳의 시인과 예술가들이 실상은 시와 예술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부정하며, 겉치레뿐인 기묘함으로 자신을 꾸미는 목소리 큰 허풍쟁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나는 그 오래된 풍경들이 좋아서 그곳에 머물렀다. 나는 그리니치가 아직 도시의 물결에 휩쓸리기 전, 평온한 마을이었던 전성기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모든 흥청망청한 이들이 자취를 감춘 새벽녘이면, 나는 구불구불하고 비밀스러운 길 사이를 홀로 거닐며, 수 세대의 시간이 그곳에 쌓아 올

렸을 기묘한 비의(秘儀)를 곱씹었다. 그 시간은 내 영혼을 살아있게 했고, 내 내면에 깊이 잠든 시인이 갈망하던 꿈과 환영을 조금이나마 선사해주었다.

구름 낀 8월의 어느 날 새벽 2시경이었다. 나는 서로 떨어진 안뜰들을 차례로 가로지르고 있었고, 그때 그 남자를 마주쳤다. 한때는 그림 같은 골목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건물 사이의 어두운 복도를 거쳐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막연한 소문으로만 듣던 이 골목들은 오늘날의 지도에는 결코 나와 있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잊혔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매료시켰고, 나는 평소보다 두 배는 더 열정적으로 이 길들을 찾아 헤맸다.

마침내 이곳을 찾아내자 나의 열망은 다시금 두 배로 커졌다. 골목의 구조를 살펴보니, 이런 곳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높은 벽과 버려진 뒷건물들 사이에 끼어 어둡고 침묵에 잠긴 또 다른 골목들이 분명 어딘가에 더 존재할 것만 같았다. 그곳들은 불빛 하나 없는 아치형 입구 뒤에 숨어 있거나, 외지인들의 웅성거림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 잠겨 있을 것이다. 혹은 세상의 빛을 거부한 채 은둔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은밀한 예술가들의 손에 의해 철저히 가려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말을 이어갈 때, 다락방 창문 하나에서 새어 나온 노란 불빛 사이로 그의 얼굴이 언뜻 보였다. 고결하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한 노인의 얼굴이었다. 그 모습에서는 그 시대와 장소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혈통의 기품과 세련미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 이목구비가 주는 즐거움

만큼이나, 얼굴에 서린 어떤 기질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지나치게 창백했거나, 혹은 너무나 무표정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지역의 분위기와 너무도 어울리지 않아서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그를 따라갔다. 그 우울한 나날들 속에서, 고풍스러운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쫓는 나의 탐구만이 내 영혼을 지탱해 주는 전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와 비슷한 갈망을 품은 이가, 나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그 탐구를 이어온 듯 보였으니, 이는 운명이 내게 준 드문 축복이라 생각했다.

밤의 정적 속에 감도는 무언가가 망토를 두른 사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 시간 넘게 불필요한 말을 아끼며 나를 이끌었다. 고대의 이름이나 연대, 변화된 양상에 대해서만 아주 짧게 언급할 뿐이었다. 우리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고, 복도를 까치발로 지나고, 벽돌 담을 기어올랐다. 한 번은 낮고 아치형인 돌 통로를 손과 무릎으로 기어 지나가기도 했다. 그 통로는 끝도 없이 길고 구불구불하게 뒤틀려 있어서, 내가 간신히 붙잡고 있던 지리적 위치에 대한 단서마저 결국 모두 지워버렸다.

우리가 목격한 것들은 매우 오래되고 경이로웠다. 적어도 희미하게 흩어지는 빛줄기에 의지해 바라본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미지의 고대 유적이 끝없이 이어진 이 미로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흔들거리는 이오니아식 기둥과 홈이 파인 벽주, 항아리 모양의 머리를 한 철제 울

타리 기둥, 그리고 화려한 인방이 달린 창문과 장식용 채광창은 더욱 기묘하고 생경하게 변해갔다. 나는 그 광경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 * * * *

사람은 한 명도 마주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이 켜진 창문도 점점 드물어졌다. 처음 마주친 가로등은 오래된 마름모꼴 모양의 기름등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촛불을 밝힌 등도 보였다. 마침내 우리는 빛 한 점 없는 끔찍한 안뜰을 가로질러야 했다. 안내인이 장갑 낀 손으로 나를 이끌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높은 담장에 달린 좁은 나무 대문까지 나를 인도했다. 그곳을 지나자 일곱 집마다 하나씩 랜턴이 걸려 있는 짧은 골목이 나타났다. 믿기지 않을 만큼 고풍스러운 식민지풍의 양철 랜턴이었는데, 원뿔형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옆면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 골목은 가파른 오르막으로 이어졌다. 뉴욕의 이 지역에서 이토록 가파른 경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골목 끝은 담쟁이덩굴로 뒤덮인 어느 저택의 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벽 너머로는 창백한 큐폴라와, 희미한 빛이 감도는 하늘을 배경으로 흔들리는 나무 끝자락이 보였다. 담장에는 못이 박힌 검은 참나무로 만든 작고 낮은 아치형 문이 있었고, 안내인은 묵직한 열쇠로 그 문을 열었다. 그는 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갈길로 보이는 곳을 지나, 마침내 돌계단을 올라 집 문 앞에 다다랐다. 그는 문을 열어 나를 들여보내 주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다. 문을 열자마자 끝을 알 수 없는 퀴퀴한 악취가 우리를 향해 훅 끼쳐왔고, 나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다. 수 세기 동안 이어진 불결한 부패가 만들어낸 결과물임이 분명했다. 주인은 이 냄새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예의를 차리기 위해 침묵을 지켰다. 그는 나를 안내하며 굽이진 계단을 올라 복도를 지나 어느 방으로 이끌었고, 뒤이어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밝아오는 하늘을 겨우 비추고 있는, 작은 유리창 세 개가 달린 창문들의 커튼을 쳤다. 그러고는 벽난로 쪽으로 걸어가 부싯돌을 쳐서 불을 붙였다. 그는 열두 개의 촛대가 달린 촛대에 초 두 개를 켰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라는 듯한 몸짓을 내게 보냈다.

희미한 빛 사이로 보인 방은 넓고 가구도 잘 갖춰진 도서관이었다. 18세기 초반에 지어진 듯한 그곳은 벽면이 판자로 마감되어 있었고, 문 위에는 화려한 페디먼트가, 천장 가장자리에는 아름다운 도리스식 코니스가 장식되어 있었다. 벽난로 위쪽에는 소용돌이와 항아리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된 상부 장식까지 갖춰져 있었다. 벽을 따라 빼곡히 들어선 책장 위로는 가족들의 초상화가 간격을 두고 걸려 있었다. 초상화들은 모두 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어둡게 변색되어 있었으나, 지금 나에게 우아한 치펜데일 탁자 옆 의자를 가리키는 저 남자와는 분명히 닮아 있었다.

나의 주인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앉기 전, 마치 무언가 쑥스러운 듯 잠시 멈칫했다. 그러고는 느릿느릿 장갑과 챙이 넓은 모자, 망토를 벗어 던졌다. 마침내 드러난 그의 모습은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 같았다. 뒤로 묶은 머리와 목의 러플 장식부터 무릎까지 오는 브리치스, 실크 스타킹, 그리고 미처 보지 못했던 버클 달린 구두에 이르기까지, 그는 완벽한 조지 시대 중기의 복장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리라 모양의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천천히 몸을 파묻으며,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했다.

그가 모자를 벗자, 이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극도의 노쇠함이 확연히 드러났다. 그 기이할 정도로 긴 세월의 흔적이 내가 처음 느꼈던 불안의 근원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그가 길게 말을 이어갈 때면, 낮고 공허하며 조심스레 죽인 목소리가 종종 가늘게 떨리곤 했다. 매 순간 커져만 가는 경악과 애써 부인하려 했던 불안을 느끼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다.

"보시다시피 말입니다," 주인장이 입을 열었다. "저는 아주 기이한 습관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재치와 식견을 갖춘 분께 제 차림새를 구태여 변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저는 지나간 옛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 시대의 방식대로 생활하고 그들의 복식과 예법을 따르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과시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취향은 누구에게도 결례가 되지 않으니까요. 다행히도 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시골 저택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1800년 이후 이곳까지 들어선 그리니치에 이어, 1830년경에는 뉴욕이 인접해 오면서 두 도시에 집어삼켜지듯 둘러싸였지만 말입니다. 가문에서 이 땅을 엄격히 관리해 온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고, 저 또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1768년에 이 저택을 물려받은 지주께서는 특정한 학문을 연구

하셨고, 몇 가지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 학문과 발견은 모두 이 땅에 깃든 어떤 힘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그렇기에 무엇보다 철저히 보호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학문과 발견으로 얻은 기이한 결과물들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엄격한 비밀을 전제로 말이지요. 당신의 흥미와 신의를 믿어도 될 만큼,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꽤 정확하다고 자부합니다."

"나의 조상에게는 말이지요," 그가 나직이 말을 이었다. "인류의 의지 속에 아주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힘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온갖 힘과 물질을 다스리는, 좀처럼 의심받지 못한 지배력을 지니고 있었죠. 심지어 자연 그 자체보다 더 보편적이라 여겨지는 수많은 원소와 차원까지도 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조상은 시공간처럼 거대한 존재의 신성함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 언덕에 진을 치고 살았던 혼혈 인디언들이 행하던 의식들을 기이한 용도로 써먹기도 했지요.

그 인디언들은 이곳에 건물이 들어설 때 분노를 표출했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이곳을 방문하게 해달라며 지독하게 괴롭히곤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매달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담을 넘어 몰래 들어왔고, 은밀하게 어떤 의식들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1768년, 새로 부임한 지주가 그들의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후 지주는 그들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땅을 마음껏 드나들게 해주는 대신, 그들이 행하는 의식의 내밀한 실체를 전부 알아내기로 한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지주는 인디언들의 관습 중 일부는 붉은 피부의 조상들에게서, 또 일부는 네덜

란드 연방 시절의 한 네덜란드인에게서 물려받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지주가 그들에게 아주 질 나쁜 럼주를 대접했던 모양입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말입니다. 비밀을 알아낸 지 일주일 만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지주뿐이었으니까요. 선생님, 당신은 이 비밀을 전해 들은 첫 번째 외부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유물에 이토록 열을 올리지 않았다면, 내가 감히 그—거대한 힘들—을 건드리는 위험을 무릅썼겠습니까?"

그가 격식 없는 말투로, 마치 지나간 옛 시절의 익숙한 어조를 빌려 말하기 시작하자 나는 몸서리쳤다. 그는 말을 이어 나갔다.

"하지만 선생님,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지주가 그 잡종 야만인들에게서 얻은 것은 그가 깨닫게 된 지식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가 옥스퍼드에서 보낸 세월이 헛된 것도 아니었고, 파리에서 고대 연금술사이자 점성술사인 노인과 대화를 나눈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세상이란 그저 우리 지성이 만들어낸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지한 자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자들에 의해 버지니아산 고급 담배 연기처럼 불었다가 들이마셔지는 구름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만들어낼 수 있고, 원치 않는 것은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사실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주 근사한 광경을 선사하기에는 충분히 진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선생님께서도 상상 속에서 마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광경을 직접 보신다면 분명 즐거워하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보여드리려는 것을 보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창가로 와서 조용히 계시기 바랍니다."

* * * * *

집주인은 내 손을 잡아 이 악취 나는 방의 긴 벽면에 난 두 창문 중 하나로 이끌었다. 장갑을 끼지 않은 그의 손가락이 내 손에 닿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오한을 느꼈다. 그의 살결은 건조하고 단단했으나, 마치 얼음 같은 질감이었다. 나는 그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려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나는 다시금 현실의 공허함과 공포를 떠올리며, 그가 나를 어디로 이끌든 기꺼이 따르겠노라 마음을 다잡았다.

창가에 다다르자, 남자는 노란 실크 커튼을 젖히고는 내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도록 유도했다. 처음에는 아주 먼 곳에서 무수히 많은 작은 빛들이 춤을 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마치 집주인이 은밀하게 손을 움직인 것에 반응이라도 하듯, 번쩍이는 섬광이 풍경을 훑고 지나갔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내가 마주한 것은 울창한 잎사귀들의 바다였다. 그것은 오염되지 않은 태고의 숲이었으며, 평범한 정신을 가진 이라면 당연히 예상했을 법한 지붕들의 바다가 아니었다.

오른편에서는 허드슨강이 사악하게 번뜩였고, 저 멀리 앞쪽으로는 불안하게 깜빡이는 반딧불이들이 흩뿌려진 거대한 염습지의 불길한

일렁임이 보였다. 번뜩임이 사라지자, 늙은 강령술사의 밀랍 같은 얼굴 위로 사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건 제 시대 이전의 일입니다. 새로운 지주가 오기 전의 일이지요. 그러니 제발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나는 정신이 아득했다. 저 저주받은 도시의 혐오스러운 현대성이 나를 짓눌러 놓았던 것보다, 한층 더 깊은 혼미함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세상에!"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걸,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때는 노란 송곳니였을 검은 그루터기를 드러내자,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커튼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그는 그 끔찍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발톱으로 나를 붙들어 세우더니, 다시 한번 그 간교한 몸짓을 해 보였다.

번쩍, 다시 한번 번개가 내리쳤다. 하지만 이번에 비춘 풍경은 아주 낯설지만은 않았다. 그곳은 그리니치였다.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처럼 여기저기 지붕이나 집들이 늘어서 있긴 했지만, 곳곳에 아름다운 초록빛 오솔길과 들판, 그리고 풀이 우거진 공터가 펼쳐진, 예전의 그리니치였다. 저 멀리 습지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으나, 더 먼 곳에는 당시 뉴욕의 전부였던 도시의 첨탑들이 보였다. 트리니티 성당과 세인트 폴 성당, 그리고 브릭 교회가 주변의 다른 성당들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마을 전체에는 나무를 태우는 연기가 희미한 안개처럼 감돌고 있었다.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눈앞의 광경 때문이라기보다, 상상력이 공포스럽게 불러일으킨 수많은 가능성 때문이었다.

"당신은…… 감히, 정말로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경외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도 나와 같은 감정을 공유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다시 불길한 미소가 되살아났다.

"멀리라고? 내가 본 것을 본다면 너는 미쳐버린 돌상으로 변해버릴 거다! 뒤로, 뒤로 물러나라고! 아니, 앞으로, 더 앞으로! 보란 말이다, 이 한심하고 멍청한 놈아!"

그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 문구를 읊조릴 때, 그는 다시 한번 손짓했다. 그러자 이전의 빛들보다 훨씬 더 눈이 멀 듯 강렬한 섬광이 하늘로 치솟았다. 꼬박 3초 동안 나는 그 아수라장 같은 광경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나는 평생 꿈속에서 나를 괴롭힐 풍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하늘은 기괴한 날개 달린 것들로 가득해 마치 벌레가 들끓는 듯했고, 그 아래로는 지옥 같은 검은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거대한 돌 테라스들이 층층이 쌓인 그 도시는, 달을 향해 불경스러운 피라미드들을 난폭하게 내던져 놓은 형상이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창문에서는 악마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공중에 떠 있는 회랑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뒤엉켜 꿈틀대고 있었다. 가늘게 째진 눈을 가진 노란 피부의 사람들이 주황색과 붉은색의 기괴한 옷을 입은 채, 열병에 걸린 듯 울려 퍼지는 북소리와 외설적인 딱딱이 소리, 그리고 광기 어린 뿔나팔의 신음 소리에 맞춰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다. 소리가 죽은 뿔나팔의 끊임없는 애도는 마치 불경한 역청의 바다처럼 파도치며 높낮이를 반복했다.

나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리고 마음의 귀로, 그 풍경에 뒤섞인 불경스러운 불협화음의 소란을 들었다. 그것은 그 시체 같은 도시가 내 영혼 속에 불러일으켰던 모든 공포를 비명처럼 실현해 내는 듯했다. 나는 침묵하라는 모든 경고를 잊은 채, 신경이 무너져 내리고 벽들이 내 주변에서 떨리는 와중에도 그저 비명을 지르고, 또 비명을 지르고, 비명을 질러댔다.

번쩍이는 섬광이 잦아들자, 나를 맞이한 주인 역시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비명에 격분하여 뱀처럼 일그러졌던 그의 얼굴 위로, 이제는 충격적인 공포가 반쯤 번져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더니 내가 그랬던 것처럼 커튼을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마치 사냥당하는 짐승처럼 머리를 격렬하게 휘저었다.

그가 왜 그토록 겁에 질렸는지는 신만이 아실 것이다. 내 비명 소리가 잦아들 무렵, 지옥을 연상케 하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불길해서, 오직 마비된 감정 덕분에 나는 겨우 정신을 유지하며 깨어 있을 수 있었다. 잠긴 문 너머 계단에서 규칙적이고 은밀한 삐걱거림이 들려왔다. 마치 맨발이나 가죽신을 신은 무리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듯한 소리였다. 마침내 희미한 촛불 아래 번뜩이는 황동 문고리가 조심스럽고도 단호하게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곰팡내 나는 공기 사이로 노인은 나를 향해 손톱을 세우고 침을 뱉었다. 그

는 움켜쥔 노란 커튼과 함께 몸을 흔들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짖어댔다.

"보름달이라니, 빌어먹을! 너, 너... 이 짖어대는 개 같은 놈아! 네놈이 그들을 불러들였어, 그래서 그놈들이 나를 잡으러 온 거야! 모카신을 신은 발소리... 죽은 자들... 맙소사, 이 붉은 악마들아, 신께서 너희를 저주하시길! 하지만 난 너희의 럼주에 독을 타지 않았어. 너희의 그 병든 마법을 내가 지켜주지 않았더냐? 너희 스스로가 술을 퍼마시다 병든 것이지, 저주받을 놈들! 그러고는 꼭 이 지주 탓을 해야겠느냐! 놓아라, 이놈! 문빗장을 놓으란 말이다! 여기엔 너희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느릿하고도 아주 의도적인 세 번의 두드림이 문짝을 흔들었다. 광기에 사로잡힌 마법사의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고였다. 공포가 강철 같은 절망으로 변하자, 나를 향한 그의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다. 그는 내가 몸을 지탱하고 있던 탁자 쪽으로 비틀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다. 왼손은 나를 할퀴려 허공을 휘저었고, 오른손에는 여전히 커튼을 움켜쥐고 있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커튼은 결국 높은 고정 장치에서 떨어져 내려와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와 동시에, 밝아오는 하늘이 예고했던 듯한 한 줄기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초록빛을 띤 달빛이 스며들자 촛불은 빛을 잃고 창백해졌다. 벌레가 파먹은 문짝과 내려앉은 바닥, 낡은 벽난로와 삐걱거리는 가구, 너덜너덜한 휘장까지. 향취가 진동하는 이 방의 모든 곳에 부패의 기운이 새로이 번져 나갔다. 그 기운은 노인에게도 덮쳐왔다. 달빛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공포와 격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가 독수리 같은 발톱으로 나를 찢으려 달려들 때, 나는 그의 몸이 쪼그라들며 검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오직 눈만은 온전했다. 눈 주변의 얼굴이 검게 타들어가며 쪼그라드는 와중에도, 그의 눈은 확장된 채로 무언가 밀어붙이는 듯한 강렬한 빛을 내뿜으며 나를 노려보았다.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집요하게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금속성이 섞인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내 앞에 놓인 검은 형체는 이제 눈만 달린 머리 모양으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가라앉는 바닥을 따라 내 쪽으로 기어오려 무력하게 몸부림쳤고, 이따금 불멸의 악의를 담은 가냘픈 침을 내뱉었다.

곧이어 날카롭고 파괴적인 타격이 병든 판자들을 몰아쳤다. 찢겨 나가는 나무 사이로 토마호크의 번뜩임이 보였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기에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문이 산산조각 나며 부서졌고, 그 틈으로 빛나는 악의 어린 눈들이 박힌 거대하고 형체 없는 잉크 같은 물질이 밀려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썩은 격벽을 뚫고 터져 나온 기름 홍수처럼 걸쭉하게 쏟아졌다. 퍼져 나가는 과정에서 의자 하나를 뒤엎더니, 마침내 탁자 밑을 지나 방 건너편으로 흘러갔다. 그곳에는 눈을 부라린 검은 머리가 여전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물질은 그 머리 주위를 에워싸더니 완전히 집어삼켜 버렸다.

잠시 후, 물질은 다시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에게는 전혀 닿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짐을 실은 듯 머리를 끌고 나갔다. 그리고는

다시 그 검은 문밖으로, 보이지 않는 계단 아래로 흘러 내려갔다. 계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삐걱거렸지만, 이번에는 내려가는 순서로 소리를 냈다.

마침내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어둠에 잠긴 아래층 방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거미줄이 입안을 막아 숨이 막혔고, 공포로 인해 정신이 아득해졌다. 깨진 창문 사이로 스며든 초록빛 달빛이 반쯤 열린 복도 문을 비추고 있었다. 석고 가루가 흩뿌려진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고 내려앉은 천장에서 간신히 몸을 빼내었을 때, 문 너머로 끔찍한 어둠의 급류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 어둠 속에는 수십 개의 불길한 눈동자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것은 지하실 문을 찾아 헤매더니, 문을 발견하자마자 그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곧이어 위층 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아래층 방의 바닥마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조금 전 위층에서 무언가 굉음을 내며 무너진 뒤, 돔 형태의 지붕이었을 무언가가 서쪽 창문 너머로 추락하는 소리가 들려왔었다. 잠시나마 잔해더미에서 벗어난 나는 복도를 가로질러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지 않자, 나는 의자를 집어 들어 창문을 깨부수고는 미친 듯이 밖으로 기어 나갔다. 달빛이 허리춤까지 자란 잡초와 풀 위에서 일렁이는 거친 잔디밭이었다. 담장은 높았고 모든 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구석에 쌓인 상자 더미를 옮겨 그 위로 올라간 뒤, 그곳에 놓인 커다란 석제 항아리에 매달려 간신히 버텼다.

탈진한 상태였던 나는 기이한 벽들과 창문들, 그리고 낡은 박공지붕들만을 간신히 볼 수 있었다. 내가 들어온 가파른 길은 어디에도 보이

지 않았고, 눈에 들어오는 아주 적은 풍경조차 강에서 밀려드는 안개 속으로 빠르게 잠겨버렸다. 눈부신 달빛이 내리쬐고 있었음에도 안개는 자욱했다. 갑자기 내가 붙잡고 있던 항아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나를 덮친 치명적인 어지럼증을 함께 나누기라도 하듯 말이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내 몸은 알 수 없는 운명을 향해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나를 발견한 남자의 말에 따르면, 나는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아주 먼 거리를 기어온 모양이었다. 그가 눈을 돌려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곧 쏟아진 빗줄기가 내가 겪은 참혹한 현장과 나를 이어주던 그 흔적을 지워버렸다. 결국 보고서에는 내가 페리 스트리트 인근의 작은 검은 안뜰 입구에서, 정체 모를 곳으로부터 나타났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될 수 없었다.

그 어두컴컴한 미로 속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 적은 결코 없으며, 만약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그 어떤 제정신인 사람에게도 그곳으로 가라고 권하지 않을 것이다. 그 고대의 존재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그 도시는 죽어 있으며, 예상치 못한 공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 나는 그저 저녁마다 향긋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순수한 뉴잉글랜드의 시골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다.